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게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4M DRAM 세계수요 동향

일본의 일간공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4M DRAM 선발메이커들은 퍼스널 컴퓨터(PC)에 대한 왕성한 수요를 반영, 금년도 4M DRAM 수요는 작년보다 약 20% 가량 늘어나면서 개수로도 10억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4M DRAM으로서도 사상 최대의 수요치임은 물론 최대 연간수요 8억개까지 기록했던 1M DRAM의 성수기에 비해서도 더 많은 물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반도체 메이커들은 자국의 내수시장 수요회복 지연을 이유로 설비투자를 억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공급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M DRAM은 제품출하가 개시된 이래 작년 여름까지 약 1년여 동안에 걸쳐 시장형성이 늦어진 반면 메이커들의 공급과잉이 겹쳐 가격이 급락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 했었다. 하지만 작년 여름 이래 미국의 PC 수요 증가가 견인차 역할을 함에 따라 급격한 시장팽창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4M DRAM제품의 시장충족률은 70~80% 정도로 심각한 공급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 수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PC 세계 수요는 금년도 4,000만대를 넘어 작년도보다 500만대 이상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더우기 최근 윈도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PC 1대당 주기억 용량이 급증, 표준 신

형기종의 경우 6메가바이트(48메가바이트)가 평균치로 되고 있다. 가령 윈도우NT상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12내지 16메가바이트의 메모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환경의 소프트웨어를 요구하는 수요자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메모리양도 계속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년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4M DRAM의 수요 10만개 돌파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2. 미국 컴산 유럽 PC 시장 공략

유럽 퍼스널컴퓨터(PC) 시장에서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던 휴렛팩커드 및 디지털 이큅먼트 양사가 최근 2년간의 각고 끝에 유럽시장의 실세로 등장하는 데 성공했다.

휴렛팩커드사의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 컴퓨터 판매담당인 알렉시스 소조노프 이사는 작년 유럽시장에서 브랜드네임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 양호한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PC가격전쟁으로 고급브랜드 PC의 대량출하가 가능해지자 유럽 등지의 세계소비자들은 종전의 무명브랜드 중심의 구매에서 유명브랜드 구매로 소비 패턴을 급격히 바꿔버렸다.

이에 따라 주문이 폭주하자 IBM, 컴팩, 애플 등 세계 굴지의 PC메이커들이 체매에 주문물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결과 IBM이나 컴팩 제품을 기다리지 못

한 잠재 고객들이 휴렛패커드사 제품이나 디지털 이큅먼트사 제품으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질 좋은 경영관리도 양사의 판매제고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소재 시장조사 회사인 데이터퀘스트사의 프리스토퍼 펠 PC분석가는 휴렛패커드사의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덕분에 작년 3·4분기중 동사의 유럽시장 판매 세어가 2배 증가한 4.4%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이큅먼트도 아직 톱10에 랭크되지는 않았으나 같은 기간중 유럽시장세어가 전년동기의 1.4%에서 2.4%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사의 경우 이미 동사제품을 구매한 바 있는 고객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급증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휴렛패커드의 경우도 IBM, 컴팩, 애플 등 유력 PC메이커들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따라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3·4분기중 이들 3개사의 유럽시장세어는 38.5%에 달했다.

3. 미국, 반도체산업 국제화 급진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발표한 미 반도체산업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2년에 미국의 반도체·부품의 수출비율과 수입비율은 다같이 40%를 넘어 해외거래 의존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 반도체메이커의 해외생산이 크게 확대됐고 외국 메이커의 미국진출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안이하게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미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86년부터 92년사이 미국으로부터의 반도체·부품수출은 49억달러에서 115억달러로 증가, 출하에 대한 수출비율은 33%에서 40%로 상승했다.

반도체·부품의 수입도 60억달러에서 153억달러로 급증, 미국내에서 사용되는 수입품비율은 38%에서 47%로 상승했다.

외국메이커의 미국 진출도 증가, 미국내의 반도체·부품 생산거점 전체에 접하는 외국계 거점 수의 비율이 86년의 거의 제로에서 92년에는 약 13%로 증가했다.

또 미국과 외국 메이커와의 제휴가 급증, 86년에 연간 45건 정도였던 제휴 건수가 92년에는 연간 12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4. 미·일 특허제도 통일

미·일 양국정부는 특허제도의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특허법을 각각 부분적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특허의 유효기간을 현행의 '성립으로부터 17년간'에서 일본과 똑같은 '출원으로부터 20년간'으로 변경하고 일본은 영어에 의한 출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특허의 유효기간을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령 20년 이전에 발명한 것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인정, 외국기업들이 특허료를 부담하게 요구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허법의 부분개정은 레먼 미국 특허상표청 장관과 마생 일본 특허청장관과의 20일 회담에서 합의한 것이다.

특허문제는 미·일 포괄경제협회의 의제의 하나로서 특허법의 부분개정은 포괄협회의 합의 사항에 명기될 예정이다.

그런데 특허의 유효기간은 일본에서는 출원한 날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성립이 늦어지면 유효기간이 짧아지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독특한 제도를 취

하고 있어 출원후 몇십년이 지나 많은 기업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기술이 어느날 갑자기 특허를 인정받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출원내용의 변경 등으로 성립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특허를 일정기간 '잠복'시킨 특허를 서브마린(잠수함)특허'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최근에는 38년전 출원했던 자동차관련기술이 특허로 인정받아 일본의 부품 메이커가 특허료를 청구받은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측은 그간 미국측에 유효기간의 기산방식을 일본방식에 맞출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미국 기업들도 서브마린 특허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해 왔었다.

5. 미국, 반덤핑법 개정 추진

로이드 벤슨 미 재무장관은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반덤핑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기, 주목을 끌고 있다.

벤슨 장관은 지난 주말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나친 반덤핑 관세부과에 따른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반덤핑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같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금융원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당한 고려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최근 대미 알루미늄수출 건과 관련, 미국의 주요 알루미늄업체들의 덤핑제도로 반덤핑 규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편 국제이슈화돼 있는 알루미늄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초 브뤼셀에서 러시아, 미국, EU(유럽연합) 등의 무역대표들이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이 러시아의 알루미늄수출 건에 대해 덤핑규제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전 협상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미 대미 우라늄 수출과 관련, 덤핑규제를 받는 대신 쿼터협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6. 일본, 대중국 통신기기 수출 활기

일본의 대중국 통신기기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93년도 상반기(4~9월) 수출실적은 약 370억엔 규모로 전년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출품의 약 2/3정도는 전화국용 디지털 교환기이며 페이지, FAX, 반송장치 등도 증가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서도 순조로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연간 700억엔 규모를 넘어설 기세로 추이하고 있다.

앞으로 현지 생산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시장의 확대로 대중국 수출은 94년도에도 고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일본의 대중국 통신기기 수출실적을 보면 91년도에 183억엔 규모였던 것이 92년도에는 489억엔으로 급증했으며 93년도에는 급증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통신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대형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전화국용 교환기, 광통신장치, 무선통신장치 등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전화국용 교환기가 전체의 2/3를 점하고 있다. 단말기도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페이지의 경우 마쓰시타<통신, NEC 등이, 셀룰러전화는 유니텐 등이 실적을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서서히 현지생산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NEC는 전화국용 교환기, 광통신장치, 셀룰러/페이지 등의 현지생산을 추진하고 있고 마쓰시타 통신은 페이지, 후지쓰는 전화국용 교환기의 현지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점도 있으나 수요자체가 커 당분간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증가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 일본, 한국특허전산화 협력

일본 특허청은 한국 특허청의 페이퍼리스 계획에 협력기로 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오는 3월중 조사단을 교환, 협력의 규모·방법 등을 협의하는 외에 일본측은 한국의 심사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심사용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일간공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86년 한미통상협정의 개정에 의해 발생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일본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둘러싸고 한국과 대립, 7년동안이나 특허청간 교류를 중지했다. 이 문제는 93년 8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통상장관 회담에서도 취급돼 한국측이 대일 관계개선을 위해 일본기업에 유럽연합(UR)기업과 같은 대우를 부여키로 약속, 93년중으로 특허청간 교류를 재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특허청장관은 지난 12월중 순 도쿄에서 협력재개를 위해 모임을 갖고 사무레벨에서 구체적인 협력 안전에 대해 협의했다.

한국은 92년부터 7개년 계획으로 특허의 페이퍼리스 계획을 출범시켰는데 일본에 대해 심사기계화에 대한 협력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의 출원규모는 특허 3만 1,073건, 실용신안 2만 8,665건(92년실적)으로 일본의 1/8에 불과하지만 특허제도 및 특허청의 조직 등이 일본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일본기업의 특허출원이 전체의 30%가까이를 점하고 있어 일본의 심사자료 제공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일본 특허청은 이에 부응, 영문 초록데이터

베이스 'PAJ' (패던트 앵스트랙트 오브저팬)을 콤팩트디스크 판독전용 메모리(CD-ROM)화하여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일본기업의 한국에 대한 특허출원은 92년실적으로 8,305건에 달해 해외출원에서는 미국·유럽특허청(EPO)에 이어 많은 편이어서 일본 특허청의 한국에 대한 협력은 한국에서의 일본기업의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8. 일본, 고정형 VTR 수요 회복

일본의 유력가전메이커 마쓰시타전기산업과 도시바는 주요 가전제품의 하나인 고정형VTR의 94년 국내 수요전망치를 당초보다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1월의 국내출하수량이 전년동월비 10% 증가하는 등 대체수요가 회복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마쓰시타의 경우 당초의 전년비 마이너스에서 전년수준으로 크게 수정할 방침이다.

일본의 가전제품 시장은 컬러TV의 판매가 작년후반부터 전년동기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전체가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가전 메이커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다만 국내 생산력의 잉여상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가격의 하락도 계속되고 있다.

마쓰시타는 당초 435만대로 전망했던 94년의 고정형VTR 일본국내 수요량을 446만대로, 도시바는 420만대에서 455만대로 상향 수정할 방침이다. 당초 수요전망치를 내지 않았던 소니 및 일본빅터도 440만대란 수요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일본가전업체에 따르면 12월의 국내 VTR 출하대수는 거의 전년동월 수준이었고 93년 전체의 출하대수도 445만~450만대(전년대비

2~3% 감소)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통계로는 11월의 국내출하가 전년동월비 10.3% 증가로 나타났다.

VTR의 일본 국내출하대수는 지난 88년에 716만대로 피크를 이룬 다음 92년엔 460만대를 기록, 4년 연속 10% 안팎의 대폭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컬러TV의 국내 출하대수는 93년 1~11월 실적이 전년동기비 2.3% 감소에 그쳐 전년비 7.9% 감소를 기록했던 92년 실적에 비하면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는데 음향기기도 지난 11월엔 두자리 수의 증가를 기록하는 등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VTR의 국내생산력은 여전히 연간 2,000만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AV(음향·영상)제품과 에어컨을 중심으로 생산력 잉여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각메이커들은 해외 생산거점의 생산능력증강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1~2년 동안 국내생산체제는 계속 축소될 전망이다.

9. 중국, 컴퓨터시장 급속확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중국의 컴퓨터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중국의 컴퓨터판매량은 연간 3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달성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몇년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PC판매량은 92년보다 40%나 늘어난 35만대를 기록했으며 PC의 대당가격은 3천~3만원선을 보였다.

중국 컴퓨터·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산업발전센터의 주 무창 소장은 각 산업부문 및 가정의 컴퓨터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컴퓨터시장은 90년대 중반까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정부가 시행중인 공공정보, 대외무

역정보, 금융 및 상업정보에 관한 3개의 국가정보네트워크 설립계획도 컴퓨터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소장은 이들 3개 프로젝트는 중국의 금융, 상업, 대외무역, 관광, 정보산업에서 컴퓨터 이용이 크게 활성화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컴퓨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이 중국 컴퓨터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막대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외국컴퓨터 메이커들의 현지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500대 컴퓨터메이커 중 50개 이상이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에 진출했으며 중국정부가 컴퓨터시장 개방확대를 선언함에 따라 외국업체들의 현지진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컴퓨터를 비롯한 관련부문의 외국기업 진출을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라이선스 시스템의 수입관세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 중국, 올해 전기통신부문에 적극투자

중국정부는 올해 체신 및 전기통신부문의 고정자본 확충사업에 536억원(61억6,000만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오기전 우전부장이 밝혔다.

오부장은 국가전기통신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올해의 투자금액은 지난해보다 34%, 400억원 늘어난 것이며 자금 필요액의 대부분은 외국차관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부장은 올해 전화회선을 1,200만회선 증설, 총용량을 5,200만회선으로 확대하고 전화보급대수도 지난해의 590만대보다 많은 900만대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